

# 오늘이야말로 행복한 소풍 같은 순간

# 그라제

올해 6회를 맞이한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주제는 '오! 늘 소풍'. 오늘이야말로 행복한 소풍 같은 순간임을 연상시키는 캐치프레이즈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그라제'를 오는 10월 3일~5일 대극장, 소극장 및 잔디광장(야외무대) 등 전당 일원에서 펼친다. 체코 브르노 필하모닉과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를 비롯해 김필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하는 공연예술 무대는 기대를 갖게 한다.

행사는 오는 3일(오후 2시) 대극장에서 '브르노 필하모닉&데니스 러셀 데이비스 with 신창용'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러셀 데이비스가 지휘봉을 잡으며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협연, 체코 역사와 민족주의 색채를 담아내는 브르노 필하모닉만의 색채를 선사한다. 이들은 윤이상 곡 '서주와 추상'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단조',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사장조'를 연주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소극장에 오르는 광주시립극단의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도 볼거리다. 백혈병에 걸린 소년 오스카가 장미할머니를 만나 우정과 삶의 의미를 깨닫아가는 내용으로 프랑수아 베스트렐 작가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 원작을 극화했다.

대극장 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비눗방울 퍼포먼스'는 그라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오후 6시 20분부터 퍼포먼스 팀 '버블타이거'가 출현해 '버블 매직쇼'라는 주제로 어린이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5일 오후 5시 20분에도 진행)

이어 오후 7시부터 광주시립합창단의 '만국과 버꾸춤', 광주시립합창단 'All that Harmony', 광주시립발레단 '코렐리아 하이라이트'도 잔디광장 특

설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야외음악회 with 그라제' 특별연주회는 이튿날 오후 7시 잔디광장 특설무대에 오른다.

로시니의 '월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차이코프스키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Op.42-3', 김호근의 '첫사랑'이 울려 퍼진다. 영화 스타워즈 OST인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메인 테마'도 클래식 버전으로 재해석되며 지휘에 김영연(광주시향 부지휘자), 바이올린 신지아 및 팡페라 듀오 듀에토(백인기·유슬기)가 출연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소극장을 찾은 디에이드의 'Holiday'도 이목을 끈다. 보컬리스트 안다은과 기타리스트 김규연으로 결성된 2인조로 젊은 세대에 대해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 '묘해, 너와'와 등

## '오! 늘 소풍' 주제 공연축제

### 10월3~5일 광주예술의전당 일원 체코 브르노 필하모닉 등 12팀 실험실 콘서트·버블매직쇼 볼거리

으로 이름을 알렸다.

행사 마지막 날(5일) 소극장(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서는 기획공연 아트워크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실 콘서트'가 열린다.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펼쳐지는 미니 콘서트를 컨셉으로 과학과 음악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 프로그램이다. 콘서트 가이드 나용준이 출연하며 김지은



광주시립발레단 '코렐리아 하이라이트'



버블타이거 '버블매직쇼'



광주예술의전당이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오는 10월 3일~5일 전당 일원에서 펼친다. 3일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체코 '브르노 필하모닉'의 모습.

(© Filharmonie Brno)

버블 퍼포먼스 '점프'도 레퍼토리에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6시 대극장에서 진행.

'점프'는 화려한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와 마살아츠, 드라마의 극적 재미를 부각시킨 작품이다. 무술에 조예가 깊은 어떤 집에 엉뚱한 도둑들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무언극(넌버벌)으로 그렸다.

오후 5시 20분부터 잔디광장에서 선보이는 피날레는 총 2부로 구성된다.

버블매직쇼로 시작하는 1부는 아이유의 5집 앨범(LILAC)의 10번 트랙('에필로그')에 작·편곡, 기타 연주로 함께했던 싱어송라이터 김수영이 채운다. 이어 슈퍼스타K6 준우승, 드라마 OST 등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보컬리스트 김필의 무대가 2부를 장식한다.

윤영문 전당장은 "다양한 행사로 채워지는 '그라제'는 청년층을 겨냥한 기획공연 포커스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콘서트,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시즌 등 폭넓은 공연예술을 만나는 자리"라며 "축제 기간 일상의 틀을 벗어나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잔디광장 공연 무료 관람(사전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트릴로지 '세 가지 색'

### '블루·레드·화이트' 연작 광주독립영화관서 상영

프랑스 극기 트리콜로르(Tricolore)의 삼색은 각각 자유(파랑), 평등(하양), 박애(빨강)를 상징한다. 폴란드 영화감독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는 이 점에 착안, 90년대에 트리콜로르를 모티브로 한 트릴로지(3부작)를 제작했다. '세 가지 색: 레드', '세 가지 색: 블루', '세 가지 색: 화이트' 등은 각각 역경을 딛고 자유, 평화, 사랑으로 나아가는 영화들이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이 '세 가지 색' 연작 특별 상영회를 연다. 블루, 화이트, 레드 순으로 각각 10월 6일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7시 20분, 15일 오후 1시, 3시, 5시에 상영할 예정이다.

시리즈 첫 순인 '블루'는 여주인공 줄리아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아이를 잃고 난 뒤, 남편과 함께 만들던 곡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내용이다. 작중 사고 당일의 아픔에 멈춰 있는 줄리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어지는 '화이트'는 아내 도미니크와 이혼한 카롤이 살인 누명을 두고 벌이는 블랙 코미디다.

마지막 작품 '레드'는 주인공 발렌틴과 퇴직된 노판사의 플라토닉 러브를 다뤘다. 마음을 단았던 존재가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용이다.

레드 상영 후에는 '무지개 시네마-영화/음악의 공감장'이라는 주제로 씨네토크도 마련된다. '모모는 철부지' 등을 펴낸 전남대 호남학과 최유준 교수가 게스트로 참여, 트릴로지 영화음악을 맡은 조비그뉴 프라이즈너의 음악세계를 이야기한다.

현장 예매, 세 작품 연속관람 시 할인혜택 제공.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담담한 듯 깊이가 느껴지는 수묵의 세계

### 최진우 전, 30일까지 오월미술관

"먹은 한지와 물과 만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 낸다. 우연의 연속인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았다."

최진우 작가의 말이다. 그의 말은 수묵화의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먹과 한지, 물의 조합이 펼쳐내는 양상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유사하다. 각각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자를 수용해 새로운 것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먹과 한지, 물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만들어낸 담담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수묵의 세계와 만난다. 오월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최진우 작가의 '무등에 물들다' 전. 네 번째 개인전에는 모두 30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어머니 품처럼 느껴지는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그림, 남도의 풍경을 형상화한 작품 등은 친근하면서도 아련한 감성을 환기한다.

화폭 위로 빗줄기가 굽는 모습을 구현한 '비 내리는 새인봉'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자주 새인봉을 올랐던 이들은 비에 젖은 흐린날의 새인봉이 전하는 무언의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늘을 향해 직립한 나무들이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히 선 모습은 광주의 기상과 정신을 은유하는 듯하다.

'무등에 물들다'에선 시간고난한 삶을 살아낸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주름살이 보인다. 그러나 험하지 않고 투박하다. 깊은 골, 작은 골이 이루어낸 산줄기마다 강인한 삶의 의지와 모든 허물을 꺼안는 온후한 인정을 느끼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回顧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여



'달빛 대숲을 물들이다'

정기 함축돼 있다. 80년 광주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은 일부 수감 생활, 이후 광주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최 작가는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 무등의 장엄

한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까? 수 없는 실패를 통해 마침내 그 형상을 찾아본다"며 "'무등에 물들다'를 통해 저마다 간직한 무등에 대한 단상이나 사유를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연·동선 작가 '영화처럼 산다면야' 책담회

### 28일 기억책방... 일러스트 작품 전시도

영화를 매개로 8000킬로미터 떨어진 두 저자가 주고 받은 편지글이 한 권의 에세이로 탄생해 화제다. '영화처럼 산다면야'의 공동 저자인 이연 작가와 동선 작가가 주인공이다.

두 저자는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지독한 '영화광이'를 했다. 둘 사이에는 공통된 경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마다 눈으로 바라본 삶과 영화의 세계가 있다. 영화 인문학 에

세이를 묶은 책에는 영화에 대한 관점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

'영화처럼 산다면야'의 책담회와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기억책방(대표 송기역)은 오는 28일 두 저자를 초대하는 책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광주 동구의 '책마을 인문산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특히 책에 수록된 동선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 10점이 오는 10월 1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송기역 대표에 따르면 이번 책담회에서는 이연 작가는 오프라인으로 초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선 작가는 온라인으로 초대한다.

책담회는 18편의 영화와 삶 이야기를 북토크와 낭독회 형식을 곁들여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책담회는 특별 손님으로 칸느영화제 MIPDOC에서 'trailblazer'상을 수상한 구본환 감독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2003년 돌연 캐나다로 떠난 동선 작가는 캐나

다 이민의 여정을 담은 '나의 이민기'를 펴낸 바 있다. 또한 이후 펴낸 '그레도 캠핑'은 캠핑을 시작하는 이들, 색다른 캠핑을 꿈꾸는 이들에게 캠핑에 관한 정보는 물론 다채로운 자연의 세계 등을 선사한다.

이연 작가는 '암과 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특히 저자가 암에 걸린 후 써내려간 삶과 존재에 대한 단상, 사유의 기록을 담아 의미가 있다.

이번 참가자들 중 10명에게 '영화처럼 산다면야'를 증정한다.

송기역 대표는 "이번 책담회는 두 작가의 영화에 대한 글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